

##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10.15~18)

### 1. 한·일 정상급·국장급 회담 관련

#### 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인민일보 해외망(人民日报海外网)은 10월 22~24일 한국 이낙연 총리가 한국 대표로 일본에 방문하여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, 아베 총리와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인용 보도<sup>1)</sup>
- 일본 정부는 이낙연 총리와의 짧은 회견을 고려하고 있으나, 한국 측이 아직 동의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라고 인용 보도(日本放送协会)
-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에 있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, 이 총리의 이번 방일이 양국 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
-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吕耀东 연구원은 인터뷰를 통해 “최근 한·일 갈등은 양국의 역사적 문제가 경제, 정치, 안보협력 방면까지 확대된 것”이라며, “일본 정부는 분쟁의 원인이 역사 문제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” 고 언급
- 환구망(环球网)은 16일 서울에서 양국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인용 보도 <sup>2)</sup>
-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참석하는 본 협의에서 양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

### 2.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 관련

1) 「韩国总理访日, 日韩能破镜重圆吗?」, 『人民日报海外网』(2019. 10. 17)

2) 「日韩将于韩总理访日前举行外交部司局级磋商, 韩媒:分歧仍存」, 『环球网』(2019. 10. 15)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관찰자망(观察者网)은 일본 관광청 자료를 인용하여 9월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이 전년 대비 58.1%(잠정치) 감소했고,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<sup>3)</sup>

○ 격화된 한·일 대립관계를 반영하듯 9월 감소폭은 8월 감소폭인 48%를 초과했으며, 일본 관광청은 한국인 관광객이 50% 이상 감소한 것은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발표

\* 다바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 장관은 사태 회복 추세에 대해 “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” 고 발언

- CCTV 뉴스(央视网新闻)는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후쿠오카, 쓰시마 섬 등 일본 유명 관광지의 여행사, 면세점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고 인용 보도<sup>4)</sup>

○ 수출규제 이후 3개월 동안 일본 여행 및 제품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다며, 현재 양국 관계가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일본 매체를 인용 보도

3. 한·일 분쟁 관련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21세기 경제보도(21世纪经济报道)는 한·일 양국의 WTO 양자 협상이 결렬되고,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양국이 모두 경제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도<sup>5)</sup>

○ 반도체 분야에서 한·일 기업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도 수입이 감소하고 향후 신상품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임.

3) 「9月韩国访日游客减少58%」, 『观察者网』(2019. 10. 16)

4) 「日韩关系堪称战后最差? 韩国抵制赴日旅游 日旅游业遭重创」, 『央视网新闻』(2019. 10. 17)

5) 「如需保持供应链关系 日韩需要进一步磋商」, 『21世纪经济报道』(2019. 10. 17)

- 일본의 무역 제제는 양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, 일본은 한국의 WTO 양자 재협상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도
- 중국신문망(中国新闻网)은 한·일 양측이 연내 갈등 해결을 종료할 수 있도록 현재 물밑 접촉 중이라는 홍남기 한국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인용 보도<sup>6)</sup>
-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“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, 연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등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 며 “WTO 제소를 통한 양자 협의 외에도 양국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” 고 언급
- 이어 “한국은 일본과 수출 제한 조치로 대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가치 사슬을 지키고자 하는 것일 뿐이며,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낙연 총리가 아베총리와 회담을 가진다면 이는 양국 관계에 좋은 전환점이 될 것” 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 보도

---

6) 「韩国副总理：韩日正私下接触 需在年内结束矛盾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10. 18)